

전쟁기에 발간된 잡지 『희망』의 ‘희망’ 표상 연구

— 아동·청소년 담론을 중심으로

최배은*

1. 서론
2. ‘희망’의 표상과 배제
 - 2-1. 고아(혼혈아, 사생아)가 아닌 훌륭한 부모의 자녀
 - 2-2. 소년범(타락한 청소년)이 아닌 유망주(천재)
 - 2-3. 고학생(직업소년)이 아닌 학생
3. 전후 현실과 괴리된 엘리트주의 유토피아

국문요약

1950년대를 대표하는 잡지 『희망』은 파괴와 상실의 전쟁기에 대중의 문화 교양을 선도하며 국가의 재건과 미래를 개척하는 데 일조하고자 발간되었다. 그러므로 『희망』에서 표상되는 ‘희망’을 탐구하는 일은 『희망』을 이해하는 핵심일 뿐 아니라 『희망』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는 길이기도 하다. 잡지 전반에서 ‘희망’은 다양한 담론으로 표상되는데, 여기선 아동·청소년 담론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희망』에서 아동·청소년은 미래의 희망이자, 현재의 절망을 표상한다. 대개 소년 잡지에서 아동·청소년을 미래의 희망으로 호명하는 것과 달리, 『희망』에선 그들의 신분과 재능에 따라 명암이 달라진다. 즉 훌륭한 부모와 단란한 가정의 자녀,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학생,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은 천재들이 『희망』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 숙명여대 한국어문학부 시간강사.

개혁할 ‘희망’으로 표상된다. 반면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한 고아나 혼혈아, 고학생, 직업소년, 소년범 등은 현재의 절망을 표상하며 사회적 결손을 가져올 존재로서 제거, 경계, 정화, 동정, 무관심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희망』이 기대한 재건의 주체는 ‘엘리트’라고 할 수 있다. 『희망』에서 보여주는 엘리트주의는 6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사회에 건재하다. 그때보다 더 많은 엘리트가 있고, 부모의 대다수가 자기 자식을 엘리트로 만들려고 애쓰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이 모순의 뿌리를 『희망』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논문은 그동안 잘 연구되지 않았던 『희망』을 살펴, 그 의의와 한계의 일면을 밝힌 의의가 있다. 하지만 동시대 다른 잡지와 비교, 고찰이 보완되어야 한다.

(주제어: 전쟁기, 『희망』, ‘희망’ 표상, 아동·청소년 담론, 자녀, 고아, 천재, 소년범, 학생, 고학생, 엘리트주의)

1. 서론

잡지의 명칭은 발간 당시의 사회·문화적 특징 및 잡지의 성격과 지향점을 알려 준다. 1950년대를 대표하는 잡지 『희망』은 전쟁기인 1951년 7월에 “총력전인 현대전에서 전방과 후방의 결속을 위한 문화선전사업”¹⁾의 일환으로 발간되었다. 휴전 이후에도 『희망』에서는 이러한 공공성을 추구하며 파괴와 상실의 현실에서 재건의 희망을 찾고자 했다. 따라서 『희망』에서 표상되는 ‘희망’을 탐구하는 일은 『희망』을 이해하는

1) 『희망』 창간호를 구해 볼 수 없어서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1953년 1월호에 게재된 본사 주간 김종환이 쓴 「결전의 새해 1953년예의 희망」(11쪽)을 읽고 참고하였다.

핵심일 뿐 아니라 그것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는 길이기도 하다. 잡지 전반에서 '희망'은 다양한 담론으로 표상되지만, 그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아동·청소년 담론'²⁾이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일제 강점기 이후 아동·청소년과 같은 미성년이 미래와 희망의 대표적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희망』에서 활용되는 아동·청소년 담론의 기능을 고려한 결과이다.

『희망』에서 아동·청소년 담론은 폐간 때까지 일관된 양상으로 꾸준히 등장하는데, 특히 발간 때부터 1956년까지의 시기에 활발히 전개된다. 읽을거리가 제한적이던 전쟁기에 『희망』은 후방의 민간인뿐만 아니라 군인 독자들에게도 사랑을 받으며³⁾ '건전한 대중오락교양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전후 여러 잡지와 경쟁하며 그 성격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1956년까지 지나친 상업성과 전문성을 경계⁴⁾하던 『희망』은 1957년 오락지 성격을 강화⁵⁾하다가 1958년 전문교양지로 급선회⁶⁾하는 방향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희망』이 가장

2) 여기서 '아동·청소년 담론'이란 19세 이하의 미성년과 관련된 사진, 기사, 광고, 문예 등 온갖 형태의 담론을 의미한다.

3) 『월간희망』 1952년 6월호와 9월호의 「독자페이지 문예싸롱」에서 군인 독자가 보낸 글들을 확인할 수 있다.

4) 『월간희망』 1955년 4월호, 발행인 김종완의 「독자에게 드리는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건전한 아속겸비(雅俗兼備)"의 잡지를 지향함을 밝히고 있다. "『희망』은 명논과 탁설을 실리는 지도적 이론만의 잡지가 아니며 그렇다고 사화나 야담만을 편중하는 읽을거리도 아니며 또 그렇다고 시나 수필이나 소설만을 엮어놓는 문예지가 아니며 그렇다고 무계획 무질서한 채로 방담과 속설의 잡동산이를 함부로 택하지도 않습니다. 『희망』은 어디까지나 건전한 아속겸비의 글짜 그대로 雜誌가 되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37쪽)

5) 『월간희망』 1957년 4월호 「편집후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형 및 체재의 변화를 알리고 있다. "체재에 있어서 종전의 국판을 46배판으로 판형을 바꿨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순수한 오락과 기타 취미 본위로 삶에 시달리는 여러분들의 유일한 위안의 반력자가 되도록 꾸며 보았습니다."

6) 『월간희망』 1958년 1월호 「편집후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년호의 변화 및 지향을

『희망』답게 발간되던 시기는 그 중간적 성격을 유지하던 1956년 때까지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희망』이 추구했던 바로 그 ‘건전성’과 ‘중간성’은 아동·청소년 담론이 자리하고 중·고등학생 독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기도 했다.⁷⁾

『희망』의 아동·청소년 담론은 화보, 탐방기(르포), 특별조사보도, 논단, 주부지식, 수기, 지역 뉴스, 해외 뉴스, 만화, 광고, 인터뷰, 문예, 독자투고 등의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한다. 담론의 주체와 대상은 주로 성인이다. <전국남고생문예대항리레>,⁸⁾ <푸른 산맥>,⁹⁾ 『<금주의 토픽> 제6학년생의 발언,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¹⁰⁾처럼 중·고생과 어린이가 발화 주체인 경우와 <어린이란>처럼 어린이 대상의 기사도 있지만 지속적이지 못하고 <어린이란>에 실리는 동시나 동화의 내포독자도 어린이라기보다 어린 자녀를 둔 성인으로 여겨진다.¹¹⁾ 그것은 일차

알린다. “대중의 문화향상에 호응하여 그 내용을 개선하여 이제 지성과 양식을 담근 대중지로서 신년과 더불어 여러분의 머리맡에 놓이므로 더욱 빛날 줄 믿는다. …(중략)… 이번 신년에 보내는 『희망』의 혁신적인 내용은 지나친 말일지 모르나 지난날의 인식을 보다 지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 7) 『월간희망』 1955년 1월호, 『독자통신란』, 182쪽을 보면 고등학생 독자가 국어 선생님께 빌려본 『희망』의 훌륭한 내용에 감탄했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와 같이 중·고등학생 독자의 목소리들이 『희망』 곳곳에서 발견된다.
- 8) 『월간희망』 1953년 7월호부터 12월호까지 6회에 걸쳐 남자 고등학생들의 문예를 실고 있다.
- 9) 『푸른 산맥』은 『주간희망』 1957년 4월 19일부터 연재된 고교생과 대학생 독자의 수상관인테 학생들의 참여도 증가하고 그 공간을 더 늘려달라는 학생 독자의 요구도 있었으나 얼마 못 가 사라졌다.
- 10) 『<금주의 토픽> 제6학년생의 발언,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나?』는 『주간희망』 1958.2.28, 49쪽에 실린 기사로 중학교 입학 앞두고 “어린이들의 말에도 어른은 귀를 기울이라”는 취지로 국민학교를 졸업하는 어린이들에게 중학교 입학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어 실은 것이다. 이러한 기사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실어왔던 입시 문제와 관련된 담론의 연장에 있으며 이벤트성이 강하다.
- 11) 『어린이란』은 『월간희망』 1955년 5월호부터 간헐적으로 동화, 동요, 동시 등이 실리는 공간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린이 독자들보다 부모의 욕망을 반영한다. 가령,

적으로 『희망』의 주된 대상 독자가 성인인 때문이겠으나, 편집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점 및 태도에 기인된 것이기도 하다. 잡지에서 확인되는 아동·청소년 담론은 성인의 시점에서 그들의 욕망과 가치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일방적이고 의도적이다.

다시 말해 『희망』의 아동·청소년 담론을 살펴본 당대 그들의 생각과 욕망을 알기 어렵다. 『희망』에서 아동·청소년 담론은 그 어떤 기사보다 상징적이고 기능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창간 때부터 폐간하기까지 10여 년 동안 전쟁, 휴전, 4·19혁명, 5·16 쿠데타 등의 역사적 전환을 거쳐 왔음에도 아동·청소년 담론은 비슷한 내용과 유형이 이어지고 심지어 같은 기사가 반복적으로 실리는 것¹²⁾을 보더라도 이러한 점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희망』에서 아동·청소년 담론은 『희망』이 전망하고 지향하는 바를 나타내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사를 살펴 『희망』에 제시된 '희망'의 표상을 분석하고 그것의 의미와 한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희망』에 대한 연구¹³⁾는 서지 정보 및 주로 발간 초기의 문예를

-
- 1955년 5월호의 한창동이 쓴 동화 『환갑』(160쪽)은 어린 딸이 저금통을 털어 아버지 환갑 선물을 마련한다는 이야기이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교육하고자 하는 '효'와 '저축'의 가치를 담고 있어, 부모를 내포독자로 하여 창작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다.
- 12) 『월간희망』 1955년 11월호에 실린 「〈본사특파〉 난지도 3동 소년시 탐방기」(56-61쪽)는 『주간희망』 1956년 10월 26일 「〈카메라 '루포'〉 꿈을 꽃피우는 소년시」(28-31쪽)에 다시 실리고 있다. 제목과 서술 방식을 조금 바꾸었지만 1년 뒤의 취재인데 그 내용이 거의 같다. 또 두 번째 취재라면 그러한 사실을 알릴 텐데 마치 처음 소개하는 기사처럼 쓰고 있다.
- 13) 전지니, 『『희망』 소재 문예면에 나타난 전쟁기의 윤리·김광주의 『동방이 밝아온다』(1951)와 방인근의 『유엔공주님』(1952)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70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6, 103-130쪽; 전지니, 「1950년대 초반 종합지 『희망』의 반공청년 표상 연구」, 『어문론총』 제68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6, 370-400쪽; 조운아, 「인권교육의 텍스트 확장을 위한 연구-1950년대 대중잡지 『희망』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제47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15, 115-136쪽; 엄동섭, 「1950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이유는 장기간 발행된, 방대한 분량의 잡지 이면서 서지 사항이 불안정한 『희망』의 전모를 찾고 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2014년 초 대중서사학회 『희망』세미나 팀이 조직되어 개인소장본 일부를 제외하고 전권을 수집하여 그 전모를 탐구하였다. 특히 『월간희망』, 『주간희망』을 모두 아울러 수집하여 읽음으로써 기존의 『월간희망』 중심의 시야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연구의 일환인 이 연구도 발간 초기부터 폐간 때까지의 『월간희망』, 『주간희망』 모두에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관련 담론을 그 대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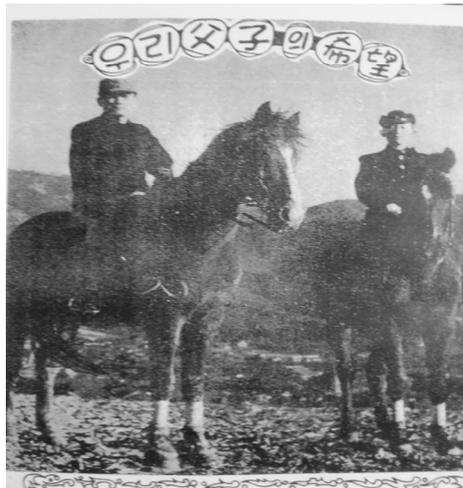
『희망』에서 아동·청소년은 미래의 희망이자, 현재의 절망을 표상한다. 즉 아동·청소년이란 존재 자체가 희망인 것이 아니라 희망의 조건을 갖춘 자만이 희망으로 표상되는 것이다. 그것은 크게 가족 및 사회적 관계로부터 부여된 신분과, 재능 등의 개인적 자질에 따른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자녀/고아’, ‘학생/고학생(직업소년)’ 담론으로 구성되고, 후자는 ‘유망주/소년범’의 담론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에서는 ‘절망’의 경계(警戒)와 함께 이루어지는 희망의 표상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3에서는 앞에서의 논의를 종합하여 아동·청소년 담론을 통해 규명한 『잡지』 희망의 지향점과 한계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대 희망사 간행 대중잡지의 서지 연구, 『근대서지』 제13호, 근대서지학회, 2016, 158-189쪽; 이은선, 「전쟁기 『희망』과 조흔파의 “명랑소설” 연구」, 『어문론총』 제66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5, 295-321쪽.

2. '희망'의 표상과 배제

2-1. 고아(혼혈아, 사생아)가 아닌 훌륭한 부모의 자녀

『일간희망』 1952년 12월호부터 1953년 2월호는 '우리 父子의 希望'이라는 사진 화보로 시작된다. 표지를 넘기면 다음과 같은 부자의 사진과 그 아래에 그들을 간략히 소개하는 글이 실려 있다.



위 사진은 1953년 1월호에 실렸던 정치가 이기붕(57세)과 그의 장남 이강석(16세)의 사진이다. “앞으로 나라와 젊은이들을 위하여 힘껏 봉사하겠다.”는 이기붕의 말을 시작으로 그의 화려한 학력 및 지도자 이력을 소개하고, 이강석은 “서울 중학 3학년에 재학 중, 학과전체의 성적이 우수할 뿐 아니라 특히 문학에 소질이 있”다고 소개한 뒤 “오늘은 방과 후 엄친과 함께 교외로 나가는 길”이라는 말로 맺는다. 방과 후 말을 타고 교외로 나들이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말을 타고 선 땅이 전쟁

중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당시 독자들이 이 사진을 어떠한 심정으로 보았을지 알기 어렵지만 이런 사진을 실은 편집진의 의도는 간파할 수 있다. 독자들이 그들의 실상과 괴리감을 느끼더라도 이런 훌륭한 부자의 모습에 선망과 동경의 시선을 보내게 하기 위함인 것이다. 다른 부자 사진은 대부분 교복을 입고 공부하는 아들 곁에서 아버지가 무언가 일러주는 사진이지만 그 효과는 위 사진과 다를 바 없다. 그들도 김법린(문교부장관), 서항석(국립극장장), 이현구(공보처차장), 전용순(실업가), 최규남(서울대 총장) 등 당시 사회 지도층 인사이므로 독자들에게는 출세한 자의 본보기이다.

이 화보의 제목은 ‘우리 부자의 희망’이지만 다양한 계층의 부자가 아닌 입신양명한 아버지와 그의 우수하고 모범적인 아들만 취재했다는 점에서 희망의 본을 선전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 같은 선전 화보는 『희망』이 발간되는 전 기간 동안 간헐적으로 지속된다. 1956년 6월호엔 ‘우리 딸자랑’이라는 제목으로 김재원(국립박물관장) 박사와 둘째딸의 사진이, 1957년 3월호엔 ‘내딸자랑’이라는 제목으로 최규남(문화부장관), 김용우(국방부장관), 김말봉(작가)과 그들의 딸 사진이 실린다. 또 1956년 8월호부터 10월호까지는 ‘일요일을 손자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박중화(소설가), 함태영(부통령), 박순천(민주당 고문)과 그의 손자가 집안의 정원 등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모습의 사진이 실리고 1956년 9월호부터 11월호까지는 ‘같은 길을 걷는 모녀상’의 제목 아래 전옥(배우), 노재신(배우), 안영자(피아니스트)와 그들의 딸 사진이 실린다. 바로 이 사진의 주인공인 유명 인사의 아들, 딸, 손자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희망’으로 표상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희망의 조건이 훌륭한 부모와 단란한 가정임을 알 수 있다. 즉 『희망』에서 지향하는 재건의 일단은 가족(가정)의 복원이다. 전쟁

이 초래한 이산가족, 고아 문제 등을 생각할 때 마땅한 일로 볼 수 있으나 그 가족(가정)의 표상이 심상치 않다. 배우, 작가, 정치인 등 유명 인사들의 가정탐방 기사¹⁴⁾도 화보와 함께 연재되는데 그들의 가정에서는 새와 피아노 등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알뜰하고 아름다운 어머니가 정원을 가꾸며 인자하고 능력 있는 아버지의 지도 아래 총명한 자녀들은 해맑고 바르게 자라난다. 한마디로 일제 강점기부터 형성되어온 근대 스위트홈의 이상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1955년부터 1956년까지 『월간희망』에 가끔 연재되는 <가정메모주부지식>은 '갓나서부터 길러야 할 좋은 습관', '포유기에 유의할 점', '젖을 땄 때 먹일 음식' 등 과학 지식을 근거로 한 이상적인 육아법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이러한 기사도 스위트홈을 이루기 위한 바람직한 주부의 역할 및 교양을 전파하기 위한 예로 들 수 있다.

한편 유교주의에 입각한 전통적 가족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이루어진다. 1954년 6월호에는 <본지독점 특별소개>로 '정몽주 선생 모당 친서 태중교육론과 '김유신 장군 모당 만명부인은 어릴 때부터 맹모의 태교론을' 이라는 기사가 실린다. 제목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정몽주와 김유신의 어머니가 쓴 태교론을 김재선이 한글로 옮겨 놓은 글이다. 그 호 <편집후기>에 "정몽주 선생 모당 친서 태중교육론은 본지가 찾은 귀한 것"이라고 강조할 정도로 이 글에 대한 기대와 자부가 엿보인다. 1957년 11월호에는 효자, 효부, 열녀의 가정을 탐방한 기사¹⁵⁾도 실린다. 이와 같이 전통적 가정과 근대 스위트홈의 이상향이 섞여 있지만,

14) 『〈인기배우가정순방〉님과 함께 같은 길, 전택이, 노경희 스위트 홈』, 『월간희망』 1956.6, 43-47쪽; 『이철혁, 조미령 스위트홈 기슭록, 알뜰한 살림에 명랑한 가정』, 『월간희망』, 1956.10, 114-118쪽 등.

15) 『〈인생가화〉메마른 이 사회의 한 떨기 꽃과도 같은 세 분의 가정을 찾다. 효자, 효부, 열녀 탐방기』, 『월간희망』, 1957.11, 280쪽.

어떤 경우든 아동·청소년이 미래의 희망으로 자라나려면 부모와 가정이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고아나 한부모 가정, 계모·계부, 병들고 능력 없는 부모 슬하의 자녀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전쟁은 한 가정을 파괴시켜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양산해낸다. 『희망』에서 그 존재들은 미래의 범주에 끼지 못하고, 주로 현실 취재 기사에서 ‘절망’을 표상하며 세태 비판 기능을 한다.¹⁶⁾ 똑같이 많은 가능성을 지닌 아동·청소년들이지만 부모와 가정의 존재 여부가 그들의 표상에 명암을 드리우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배제되는 대상은 혼혈아(사생아)이다. 혼혈아 관련 기사는 『월간희망』과 『주간희망』에 〈특별논단〉이나 〈특별탐사〉 그리고 〈화보〉의 형태로 실려 있다. 다음은 그중 혼혈아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기사의 일부이다.

(가) UN군의 유산일 이들 혼혈아들의 학령기에 달할 요즈음 점차로 늘어가고 자라는 혼혈아들의 문제는 장차 사회의 문제를 제기하리라 ... (중략) ... 대체로 이들 혼혈아인 중간적 존재의 성장은 장래 정치적으로도 등한시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이들은 보통 이하의 지능밖에 없다가며 순백계에 비하여 흑인과의 혼혈아는 평균으로 보아 더욱 지능이 떨어진다.¹⁷⁾

(나) 혼혈아 중에는 근대 국제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정식국제결혼에서 출생하는 자도 있을 것이요, 전쟁의 산물로 불의의 씨로 지목되는 자도 있는 것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별로 말성이 될 것이 없겠지마는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큰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 말할 것도 없이 후자의 경우는 대개가 사생아이기 때문에 방임할 수 없는 것이다. ... (중략) ... 과거에 사생아나 서자의 존재가 그리하였더니 만큼 앞으로 혼혈아가 등장함에 따라 그 몇 배에 달하는 사회적 결손

16) 김태운(평화신문 기자), 『〈특별탐사〉 버림받은 생명들의 가는 길은? 전제 속에서 몇 천 번 가냘픈 목과 눈시울을 적시었던가. 부모를 잃은 5만여 전제 고아군』, 『월간희망』, 1954.4, 60-67쪽 등.

17) 〈희망신문〉, 『긴급동의 자라는 혼혈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월간희망』, 1953.1, 65쪽.

을 가져올 것이냐를 생각한다면 실로 전율감을 금할 수 없다. … (중략) … 전쟁의 산물로서 폭력이나 금전의 부작용으로 햇빛을 보게 된 생명에 관한 것이므로 사회적 의의는 너무나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 (중략) … 혼혈아 문제로서 그 외국병정과 양공주들을 인간의 부모로서 생각해 볼 때 지나치게 맹랑하고도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 (중략) … 필요악의 존재로서 양공주의 존재를 승인한다 해도 자식을 낳는 데 대해서는 병정과 양공주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중략) … 기왕 생겨난 혼혈아에 대해서는 인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들의 불우한 환경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 … (중략) …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한국보다는 미국에 자선시설도 충분하므로 부친되는 병정들이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겠다. … 혼혈아를 없게 한다든가 그 숫자를 주리는 데는 어떠한 노력과 방법이 있을 것인가? … (중략) … 외국 병정들은 성적 고민을 풀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여성을 구한다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면 상대의 여성이 자식을 낳을 의무를 갖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시 자식이란 결혼을 통하여 완전한 가족체가 성립된 후에야 용납되는 것이 현대 사회의 제도이기 때문이다.¹⁸⁾

(가)는 『월간희망』, 1953년 1월호에서 혼혈아에 대한 교육의 문제를 제기한 글이고, (나)는 『월간희망』, 1954년 3월호에서 혼혈아의 증가와 성장으로 인해 예상되는 사회적 문제와 대책에 대해 논한 글이다. 둘 다 혼혈아를 'UN군의 유산', '중간적 존재', '전쟁의 산물', '불의의 씨', '폭력과 금전의 부작용'으로 규정하며 그들이 자라나서 초래할 사회적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그 논리는 (나)에 구체적으로 제시되는데, 혼혈아를 과거 서자나 사생아의 처지에 빗대어 사회적인 차별과 냉대를 받은 자들이 그에 대한 앙갚음으로 끼칠 사회적 결손을 예견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서 문제의 원인은 차별과 냉대보다 혼혈아의 존재 자체로 보고 있다.¹⁹⁾ 즉 혼혈아를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로 전제하고 논지

18) 박운대(경향신문정치부장), 『희망특별논단 혼혈아들은 어디로 가는가?』, 『월간희망』, 1954.3, 82-85쪽.

19) 덧붙여 혼혈아를 존재하게 한 남성과 여성 중 여성에 더 책임을 전가시키는 양상이 보인다. 가령 『월간희망』 1954년 4월호의 기사 배치를 보면 혼혈아 및 전제 고아의 문제를 다룬 『〈특별탐사〉 버림받은 생명들의 가는 길은?』 다음 기사엔 『〈청춘안내〉

를 전개하기 때문에 그 해결책도 혼혈아를 없애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기왕에 태어난 혼혈아는 인권의 차원에서 보살펴야 한다고 하면서도 그 어머니가 아닌 국가기관에서 길러야 한다며 혼혈아 가정의 모자 관계에 대한 폭력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을 독자의 동정심에 호소하여 설득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 혼혈아는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그 존재만으로도 동정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왕에 존재하는 혼혈아의 가장 이상적인 대책이 “부친되는 병정들이 인수하여 미국의 자선 시설”로 보내는 것이라고 한다. 혼혈아에 대한 인권 발언이 공허해지는 대목이다. 혼혈아는 무고하게 존재 자체만으로 미래의 문제이나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우리 사회에서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이다.²⁰⁾ 그러한 편견엔 (가)에 보이는 것처럼 혼혈아의 지능이 일반인보다 떨어지는데 특히 순백계보다 흑인 혼혈아가 더 떨어진다는 인종차별적 인식까지 더해진다. 그래서 필요악으로 양공주의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그들의 출산권을 박탈하여 아예 혼혈아가 태어나지 않을 방법을 제안한다. 그 근거는 결혼을 통해 완전한 가족체를 이루지 못한 자는 자식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고아나 사생아가 사회의 희망이 되는 길은 온전한 부모를 만나 새 가정에 편입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태어나자마자 불의한 현실의 씨요, 미래의 결손을 끼칠 자로 표상된 혼혈아에겐

청년들은 왜 타락하는가?」가 실려 있고, 그 전엔 『〈특별탐방〉 현대 여학생들의 이면 해부』가 실려 있어서 고아나 혼혈아가 생기는 이유가 여성들의 타락과 방종, 무책임한 태도 때문이라는 인상을 준다.

20) 『월간희망』 1956년 12월호 『붉은 거미줄에 걸렸던 혼혈아』에서는 17세 간첩 김영룡이 3세 혼혈아 존 요한을 납치하여 월북하려다 붙잡힌 사건을 보도한다. 북한이 대한민국에 미군에게 육체를 바치는 여성이 많다는 사실을 선전하기 위해 꾸민 일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사는 혼혈아의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에 해를 끼친다는 편견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마저도 허용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혼혈아 문제를 해결한 이들은 홀트 같은 외국 자선 사업가들²¹⁾이었다. 『주간희망』, 1956년 3월 26일 화보와 4월 20일 표지에선 미국으로 입양되는 혼혈아들의 사진을 볼 수 있다. 다음은 4월 20일 표지에 대한 설명이다.

작년에 8명의 혼혈고아를 데려간 후 지난달 26일 다시 또 내한한 미국 오레곤 주의 부농 해리 홀트 씨. 하느님의 은총으로 자기 행동의 전부를 돌리면서 금년 안으로 오백 명의 혼혈 고아를 입양할 것을 목표로 그의 얼굴엔 예수 그리스도의 자애가 스쳐간다. 이 순간 스물넷의 죄 없는 눈동자도 한결 맑아지니 복된 앞날이 깃드는 순간일까?²²⁾

홀트를 예수 그리스도에 빗대어 그에게 입양되는 혼혈아들에게선 구원받는 어린양의 이미지가 연상된다. 이런 기사에는 외국 자선사업가에 대한 감사와 더 많은 혼혈아들을 데려가기 바라는 기대가 묻어난다.

2-2. 소년범(타락한 청소년)이 아닌 유망주(천재)

『희망』에서 저명인사의 가족사진 못지않게 많이 실린 화보는 유망주(천재) 사진이다. 『월간희망』, 1954년 9월호 〈자라나는 예술가들〉에서 조용자 양(9세)은 연습한 지 불과 5개월 만에 전국 초등학교 무용 콩쿠르에서 특등을 차지한 천재이고, 1955년 6월호 〈꽃보다 아름답고 별보다 빛나는 12세의 천재 무희 배숙자양〉에서 배 양은 걸음을 걷기 시작하

21) 『우방의 외교관들, 30년을 한국에서, 구세군 대한본영사령관 C.W 위도슨』, 『주간희망』, 1956.6.19; 『서울의 우방인들, 동양화한 영국인』, 『주간희망』, 1956.8.17과 같이 고아, 혼혈아들을 위해 보육사업을 하는 외국인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희망』에서 탐방하는 대다수의 고아원이 유엔이나 미국 자선단체의 지원과 운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22) 〈표지의 사진〉, 『주간희망』, 1956.4.20, 54쪽.

면서부터 무용에 탁월한 소질을 보인, 동서고금의 모든 무용을 잘하는 천재이다. 1954년 12월호의 <음악계를 빛낼 내일 어린 천재들>, 1956년 1월호의 <재동들의 모습>, 1962년 2월호의 <꼬마 주산왕들> 화보에서도 재주 있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주간희망』에서는 재능으로 해외에서 인정을 받아 우리나라를 빛낸 청소년을 표지 모델로 삼고 본문에 그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1956년 5월 11일 표지 모델인 한동일 군은 미국 카네기홀에서 데뷔한 피아니스트이고, 1957년 2월 15일 표지 모델 현해은 양은 해외 공연에 초청받아 갈 예정인 바이올리니스트이며, 1957년 6월 21일 표지 모델 심은경 양은 비닐 수공품으로 국제 시장을 개척한 재주꾼이다. 이와 같이 『희망』에서 타고난 재능을 가진 아동·청소년은 그 자체로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이자 우리 사회의 희망으로 표상된다. 즉 훌륭한 가정의 자녀 못지않은 본보기로서 선전 대상이 되는 것이다.

1955년 4월호부터 8월호까지 연재되는 <학생NO1탐방>은 웅변, 육상, 토론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은 청소년들에 대한 기사이다. 8월호 예를 들자면, 『세계 토론 대회에 출전한 맹장 한국 대표 백낙청군』에서 그 주인공은 저명한 영문학자이자 문학평론가인 백낙청이다. 미국의 뉴욕 헤럴드 트리뷴지가 주최한 제 4회 세계 중·고생 토론 대회에 백낙청 군이 출전해 한민족의 우월성과 학생의 의기를 과시했다고 찬탄한 뒤, 그는 머리가 좋다가보다 노력을 많이 했고 중학교 때부터 영어공부를 해 한국 대표로 뽑히게 된 것이라며 그의 능력이 노력의 결과임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학생NO1탐방> 기사는 화보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가정환경 및 능력, 미래에 대한 포부 등을 소개하여 선전 효과를 높인다. 즉 독자가 부모의 위치에 있다면 이런 자녀를 두고 싶다는 동경을 품게 하고 중·고생 독자라면 그들의 역할 모델로 삼게 하는 것이다.

당시 천재에 대한 관심과 선망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개척할 인재에 대한 요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1959년 정간되었다가 속간된 『월간희망』 1962년 1월호의 특집 기사를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겠다. 4·19, 5·16을 거치고 발간된 『월간희망』은 사회 정세에 맞게 잡지 체제가 변화되었으나 젊은 인재에 대한 선전 기사는 여전히 실리고 있다. <특집 젊은 세대의 선봉>에서는 고등고시최연소 합격자인 19세 법률가 장기욱, 15세의 어린 나이로 전국 음악 콩쿠르에서 우승한 천재 소녀 제금가 민초혜 양 등을 소개한다. 그런데 기사 앞머리에 다음과 같이 현대 사회에서 어린 인재가 요구되는 이유를 밝혀 놓았다.

현대는 잔인하다. 묵은 식의 기계가 수명이 다하지 않았는데 고철로 던져지듯이 인간도 발전하지 않으면 쓰레기통만치의 값어치도 얻기 어려운 것. 어떻게 사람은 게릴라적 방법으로 성공의 지름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차게 돌아가는 현대의 보조에 맞출 수 있을까. 여기에 십대, 이십대로서 일가를 이룬 산 증거를 보이기로.²³⁾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어린 인재가 필요한 이유는 “게릴라적 방법으로 성공의 지름길을 걸어”가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우리 사회 전반의 발전 속도를 증가하는 인재들의 성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성공하여 개척한 지름길을 따라가면 우리 사회 전반의 발전도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인 것이다. 여기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성장 논리가 천재(인재) 담론과 만나 천재에 대한 사회적 효용이 변질되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제 천재의 효용은 타고난 재능의 실현보다 남들을 능가하는 빠른 성공에서 찾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욕망은 천재의 개념까지 변화시켜 교육을 통해

23) 『<특집> 젊은 세대의 선봉』, 『월간희망』, 1962.1, 72쪽.

천재를 만들거나 어떤 비결을 통해 천재를 낳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월간희망』에 실린 천재 교육 기사들과²⁴⁾ 천재 어머니 좌담회²⁵⁾는 그러한 기대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범죄와 비행을 일삼는 타락한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의 가난과 타락상을 보여주는 표상으로 희망의 표상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경계(警戒)의 담론을 형성한다. 발간 초기부터 폐간 때까지 소년 범죄와 일탈에 대한 기사는 꾸준히 볼 수 있다. 특히 1957년에는 이 문제에 대해 『월간희망』과 『주간희망』²⁶⁾에서 세 차례나 특집 기사로 기획된다. 그것은 1957년에 십대의 범죄나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여서라기보다 『희망』의 출간 방향과 관련 있어 보인다. 즉 오락적 성격을 강화하던 이 시기에 십대의 일탈과 관련된 자극적 기사의 효용이 커진 것이다. 세 편의 기사 내용과 관점이 대동소이하다는 점도 그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 『월간희망』, 1957년 7월호 기사를 예로 들어 살핀다. 「〈특집〉 십대의 세계, 상처 입은 세대(애정의 십자로)」에서는 “찰라적 향락을 찾는 태양족들”을 우려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청소년들에게 당부하는 기사가 실린다.

‘내일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오늘 이 순간의 향락만이 중요하다!’ …(중략)… 많은 소년소녀들이 이러한 인생관 밑에 찰나적인 향락만을 추구하는 것은 전후의 세계에 공통적으로 발생된 전후파적 현상이긴 하다. …(중략)… 그러면 내일의 조국의 중대한 운명을 걸머질 겨레의 꽃봉오리인 십대들이 어째서 태양족이라는 이름밑에 광란의 양상을 노정하고 있는 것일까. 그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근본적인 요인은 혼란의 극을 달리고 있는 사회상과 타락에 빠진 부패된 윤리 도

24) 레이몬드 제 반데엘, 「내 아들은 천재다」, 『월간희망』, 1954.11; 「다이제스트 천재교육」, 『월간희망』, 1958.3, 97쪽.

25) 「〈좌담〉 천재를 낳는 비결」, 『월간희망』, 1962.2, 80-93쪽.

26) 「〈특집〉 틴 에이지의 고독, 악의 반항에 따뜻한 손」, 『주간희망』, 1957.3.1, 3-10쪽;

「〈특집〉 이유없는 반항, 소란한 십대의 세계」, 『주간희망』, 1957.9.13, 3-12쪽.

덕일 것이다. …(중략)… 그렇다고 해서 태양쪽으로 날뛰는 십대의 행위의 모든 책임이 사회적인 조건에만 있다는 것은 물론 아니다. 혼탁한 이 사회에 있어서도 오직 앞만을 바라보고 착실하게 자신의 인생을 가꾸어 나아가고 있는 소년 소녀들이 허다히 있는 것이다. 요는 십대의 태양족이라 불리어지는 소년 소녀들이 스스로의 위치의 신분을 자각하고 찰나주의적인 몰지각한 행위를 삼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써만이 십대의 세계는 정화될 것이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겨레의 꽃봉오리가 될 것이다. 모름지기 십대들은 '내일이면 늦으리'만 찾지 말고 '우리는 내일부터다.'라고 생각해야 할 터이다.²⁷⁾

일본의 소설 『태양의 계절』에서 유래된 '태양족'은 지금 이 순간의 향락만을 추구하며 비행을 일삼는 십대들을 일컫는데 그들은 전후의 세계에 공통적으로 생겨난 전후파적 현상이라고 한다. 따라서 근본 요인은 성인 사회의 혼란하고 부패한 윤리 도덕에서 찾고 있지만 모든 조건을 사회적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다며 태양족 십대들이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자각하여 몰지각한 행위를 중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다. 여기에서 태양족은 “조국의 중대한 운명을 걸머질 겨레의 꽃봉오리”와 대척점에 놓인 “광란의 노정”을 걷는 이들이다. 같은 맥락에서 소년범은 병들어가는 새싹에 비유되기도 한다.²⁸⁾

이와 같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에서 용인되지 않은 쾌락을 추구하는 청소년들은 광기나 병든 상태로 표상되며 희망의 표상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배제의 방식이 혼혈아와는 다르다. 혼혈아는 그 씨앗부터 부정된 것으로 인식되며 존재 자체를 배제하는데 소년범이나 태양족은 타락한 환경으로 오염되고 병든 현재의 상태가 배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화와 치료를 통해 그 상태에서 벗어나면 그들은 겨레의 꽃봉오리로 거듭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논리는 고아가 부모를 만나 갱생의 길을 걷

27) 『〈특집〉 십대의 세계, 상처 입은 세대(애정의 십자로)』, 『월간희망』, 1957.7, 178-179쪽.

28) 『병들어가는 새싹들 소년범의 고백을 해부한다』, 『월간희망』, 1954.8, 135-139쪽.

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희망』에 실린 여러 소년원과 고아원의 탐방 기사가 소년범과 고아의 구원 및 재생의 서사로서 희망을 표상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때 한 가지 더 필요한 조건은 ‘학생’이다. 이에 대해선 2-3에서 다시 자세히 논하겠다.

2-3. 교학생(직업소년)이 아닌 학생

『희망』에서 아동·청소년 담론 중 가장 실질적이고 부단한 관심을 기울인 것은 학생과 관련된 것이다. 권두언, 논단, 탐방, 화보, 제언, 소식, 광고 등 잡지 전반에서 학생 및 교육과 관련된 기사가 쓰이고 있다. 그것은 『희망』이 교육에 거는 기대를 반영한다. 즉 『희망』에서는 학교를 재건하여 우리 사회의 미래를 개척하고자 한다. 따라서 ‘학생’은 『희망』의 대표적 ‘희망’ 표상이다. 『월간희망』, 1954년 9월호에는 미국 공보원이 제공하는 〈국제 토픽 뉴스 대화보〉 ‘컬럼비아 대학에 모인 세계 각국 유학생들의 어학공부의 일 장면’이 실려 있다. 이런 화보는 우리 학생들의 시선을 확장시켜 국내 학교뿐 아니라 선진국의 명문 학교 진학에 대한 꿈을 꾸게 할 수 있다. 물론 전후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는 가정이 많았던 당시에 이러한 미국 유학생 화보는 2-1에서 소개한, 말을 타고 나들이하는 이기봉 부자의 사진 만큼이나 괴리감을 주었을 것이다. 당시에는 국내에서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이 되는 일도 만만치 않았던 시기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희망』의 교육 담론에서 그러한 문제는 등한시되고 치열한 중·고생 입시제도 및 교육의 질, 그리고 대학 시설 개선 등의 문제가 적극적으로 제기된다. 다시 말해 『희망』의 교육 담론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데 경제적으로 큰 곤란을 겪지 않을 중산층 이상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입학과 졸업을 맞이하는 시기의 기

사에는 입시 경쟁으로 힘겨워하는 학생 및 부모들에 대한 기사²⁹⁾가 실리고 그러한 입시를 없애 학생들이 모두 원하는 학교로 진학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³⁰⁾이 실린다.

중·고·대학생 및 교육에 대한 담론이 많지만 「우리의 재롱둥이-유치원을 찾아서」라는 유치원 탐방 기사³¹⁾가 실리기도 하고, 「100% 진학의 교실을, 서울 사대 부속 국민교 6학년 4반을 찾아서」³²⁾처럼 중학교 진학률이 높은 초등학교 6학년 교실을 탐방하여 담임선생님의 교육 비결을 인터뷰하기도 한다. 이런 기사 모두 자녀에게 유치원 교육을 시킬 여력이 있고, 중학교 입시 준비를 잘해주는 국민학교에 관심이 있는 중산층 이상의 부모 독자를 대상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농촌에 읽을 것을」³³⁾과 같이 문교부에서 전국적으로 도서수집운동을 벌여 지방 초등학교에 무료 배부하는 소식이 실리기도 하고, 「저버려진 島嶼 교육, 당국은 좀 더 신중을 기하라」³⁴⁾에서는 문교부 당국이 예산은 확보하고서 도서(島嶼)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문제를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소외 계층의 교육에 대한 언급과 관심은 이 정도 수준에서 일회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사회적 약자의 교육에 대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기사는 『주간희망』,

29) 「중학입시준비의 중간보고, 종식을 모르는 좁은 문의 경쟁」, 『월간희망』, 1955.10, 148-151쪽 등.

30) 「〈희망직인〉 고등학교 입학에 난관을 없애라!」, 『월간희망』, 1955.3, 37쪽; 「편수행정의 기초확충 및 가지, 교육계에 대한 나의 제언」, 『월간희망』, 1958.3, 138-143쪽 등.

31) 「우리의 재롱둥이-유치원을 찾아서, 수송유치원 편」, 『주간희망』, 1958.1.3, 27쪽; 「우리의 재롱둥이-유치원을 찾아서, 왕십리 유치원 편」, 『주간희망』, 1958.1.24, 30쪽 등.

32) 「100% 진학의 교실을, 서울사대부속 국민교 6학년 4반을 찾아서」, 『주간희망』, 1958.4.25, 15쪽.

33) 「농촌에 읽을 것을」, 『주간희망』, 1956.4.20, 12쪽.

34) 김형, 「저버려진 島嶼 교육, 당국은 좀 더 신중을 기하라」, 『주간희망』, 1956.7.27, 13-14쪽.

1956년 3월 26일에 실린 『〈금주의 화제〉 교문은 굳게 닫히고 배움길이 막혔던 불구 소년의 이야기』이다. 6·25 피란길에 폭탄을 맞아 오른팔이 없어진 이병훈 군의 중학교 입학이 단지 불구라는 이유로 불허되었는데 성북중학교 교장이 허가한 이야기이다. 바로 다음 호인 4월 2일에 정충량의 시평 『불구 아들은 울고 있다. 특수교육시설이 요망되는 그들』이 실려 이병훈 군 사건을 통해 제기된 장애 아동 교육 문제에 대해 여러 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 후 장애인 교육에 대한 기사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이것으로 볼 때, 위 기사만으로 『희망』이 사회적 약자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것은 이병훈 군 사건의 연속보도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이 기사를 통해 당시 전쟁으로 인해 증가된 장애 아동들의 교육 문제가 얼마나 시급하고 중대한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에선 입시 중심의 교육 문제에만 관심을 쏟아온 것이다. 그 이유는 『희망』이 재건하고자 한 교육과 학생의 모델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 세계의 학교이기 때문이다. 『월간희망』, 1953년 2월호의 마지막 장애 실린 메셀의 저서, 『민주교육의 노선』(수도문화사)이라는 책 광고³⁵⁾를 통해서도 당시 우리 교육에 영향을 끼친 미국 교육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전망에서 자기 피를 팔아가며 학비를 마련하는 고학생이나 생계를 위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청소년들은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고단한 현실을 표상한다.

일제 강점기 소년 담론이나 소설에서 고학생은 강인하고 훌륭한 인격

35) “이 나라 교육문화의 봉화! 메셀 박사의 논고 드디어 간행”이라는 문구로 선전되는 이 책은 내용 목차까지 소개되고 있는데 각 장 제목만 밝히면 다음과 같다. “제1장 미국 사회에서의 교육의 역할, 제2장 미국교육정책의 수립, 제3장 지방학교행정에 관한 문제, 제4장 교사의 임무와 책임.”

을 지닌 미래의 유망주로 표상되지만³⁶⁾ 『희망』에서는 그에 대한 기사도 몇 편 되지 않고, 주로 고단한 현실의 비애를 드러낼 뿐이다.

◇ 소생은 여러 해 동안의 희망 애독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고학생입니다. 그렇지만 이 책은 어떻게 해서든지 꼭 사서 보는 습관이 들고 말았는데 내용에 있어 좀 더 학생을 위한 기사를 많이 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고학생을 위한 것요. (한영고등학교 1학년 이완석)

(답) 고학을 하여 가면서 끊임없는 정열을 학창에 바치고 진리를 탐구하는 이 군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그러면서도 잊지 않고 『희망』을 애독하신다는 말씀 무어라 감사의 말을 해야 옳은지 더욱 더 편집자로서의 분발심이 더할 뿐입니다. 이후론 실제적인 생활면을 통하여 고학생에게 도움되는 기사를 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의 글은 『월간희망』, 1954년 4월호의 〈희망 애독자 문답실〉에 실린 고학생의 요청과 그에 대한 편집진의 답이다. 몇 년 동안 『희망』을 애독 해온 고학생은 고학생에 대한 기사가 많아지기를 요청하고 편집진은 생활면에서 고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기사를 신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다. 이후 고학생에 대한 기사는 『월간희망』, 1954년 9월호의 『위폐 사건의 진상』, 1954년 10월호의 『돈과 피와 삶의 명암이 교착된 하나의 인생축도』, 1955년 4월호의 『밝혀도 밝혀도 치솟는 싸고 학생들의 눈물겨운 생애』가 있다. 앞선 두 기사는 고학생을 조명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 아니라 사기 사건과 혈액은행에 대한 취재 중, 고학생이 관련된 것이므로 편집진이 의도한 기사는 마지막 하나에 해당된다. 9월호 기사는 고학생 형제의 학비 마련을 위해 위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것이고, 10월호 기사는 혈액은행이 개설되고 나서 가장

36) 최배은, 『한국 근대 청소년소설의 형성과 이념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2013, 122-123쪽 참고.

피를 많이 파는 계층이 고학생이라는 기사이다. 이런 기사를 보면 고학생에게서 ‘학생’의 이미지는 증발하고 ‘뾰’한 인상만 남는다. 고학생들의 생태를 알리는 1955년 4월호의 기사도 고학생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6·25동란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많은 고학생을 거리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얼핏 보기에 이것은 학도들의 향학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현상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실 이 현상은 이 사회가 심각한 생활난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을 웅변 이상으로 말해주는 것이리라.

위의 글에서처럼 고학생은 향학열에 불타는 학생으로서보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생활난을 드러내는 존재로 표상된다. 그렇게 기자는 고학생에 대한 당국과 독자의 동정을 바라며 어려운 생활만을 보도할 뿐이다. 이와 같이 『희망』에서는 고학생의 문제에 대해 입시나 대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였던 적극적이고 치열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직업을 가진 청소년에 대한 관심도 미미하다. 그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한 기사는 발견할 수 없었고 수기³⁷⁾를 통해 그들의 고단한 삶과 그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고발하고 있다.

그런데 『희망』에서 다소 특수한 위치의 학생들이 조명 받고 있다. 그들은 바로 2-2에서 밝혔던 고아원이나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다.

37) 정영애, 「전차를 타고 20만리, 나는 12급의 전차장이다」, 『월간희망』, 1955.2, 202쪽.



위의 사진은 『월간희망』, 1954년 9월호의 「갱생하는 고아들, 소년직업학교-그들은 향학심에 불타고 있다」의 주인공인 소년직업학교 교장 권응팔 선생과 그 학교 소년들이 스스럼없이 어울리는 모습을 담은 것이다. 소년직업학교는 4년 전 권순경이 부랑아나 고아들을 모아 집단 교육을 하던 데서 비롯되어 이제는 초등반과 중등반까지 갖추고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곳이다. 학생들은 대부분 고아나 한부모 가정의 어려운 처지라서 낮에는 구두땀이나 담배장사를 하다가 저녁 때 학교에 모여 공부를 한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던 고아나 부랑아, 직업소년들이 “제2의 아버지”인 권경사와 직업소년학교를 만나 ‘자녀’와 ‘학생’의 신분을 획득하면서 다시 희망의 표상으로 자리하게 된다. 하지만 그 ‘희망’을 보는 『희망』의 시선은 훌륭한 가정의 자녀와 천재들을 마주할 때와 그 초점이 다르다.

『월간희망』과 『주간희망』에는 이러한 기관에 대한 탐방 기사가 11편 정도 실려 있다. 거의 그 기관의 창립자와 운영 방식, 그곳에서 지내는 아동 및 청소년들의 생활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창립자나 운영자는 유엔이나 외국 기관이다. 『희망』에서는 이러한 기관

을 고아나 부랑아가 갱생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기사는 모두 탐방의 형식을 띤 인상기에 그치고 있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가장 인상적으로 다가올 『월간희망』, 1955년 11월호에 실린 『난지도 3동 소년시 탐방기』³⁸⁾는 1년 뒤인 1956년 10월 26일, 『주간희망』에 재활용되는 것이다. 즉 고아원이나 소년원에서 생활하는 원생들의 입장에서 그곳의 문제점이나 개선책 등을 제기한 기사도 없고 이러한 기관의 사회적 역할이나 의의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논의한 글도 없다. 대부분 시설의 창립 배경 및 과정, 운영 방식 등을 소개하고 창립자나 운영자를 인터뷰하여 그들의 노고와 희생정신을 부각시킨다.

요컨대 고아원 등의 갱생시설 탐방 기사에서 빛나는 것은 고아들이라기보다 고아원 그 자체이자, 숭고한 봉사 정신을 지닌 창립자요, 운영자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학생 담론의 서술 방식과 다른 것이다. 학생 담론에서는 학생들 입장에서 입시 부담 등에 대한 문제나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들이 전문가들에 의해 심층적으로 논의되기 때문이다.

3. 전후 현실과 괴리된 엘리트주의 유토피아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문화는 꽃피어야 한다는 신념과 그 실천의 결과가 잡지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념 갈등으로 인해 발발한 전쟁의 한복판에서 『희망』은 선전지와 오락지의 줄타기를 하며 휴전 이후에도

38) '난지도 3동 소년시'는 유엔에서 지원하는 고아 공동체인데, 소년들의 자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이고 이상적이다. 어른 교문이 있긴 하지만 소년 시장 등에 의해 시가 운영되고 소년들 스스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여 자립성을 키우며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雜誌』에의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그러나 '雅俗兼備'를 추구하던 『희망』의 시선은 아동·청소년 담론을 통해 볼 때 일관되게 '俗'보다는 '雅'를 향하고 있다.

『희망』에서 아동·청소년은 미래의 희망이자, 현재의 절망을 표상한다. 대개 소년 잡지에서 미성년 일반을 미래의 희망으로 호명하는 것과 달리, 아동·청소년의 신분과 재능에 따라 그들의 명암이 달라지는 것이다. 즉 훌륭한 부모와 단란한 가정의 자녀,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학생, 타고났거나 후천적 노력으로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은 유망주들이 『희망』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를 개척할 '희망'으로 표상된다. 반면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한 고아나 혼혈아, 사생아, 고학생, 직업소년, 소년범, 타락한 청소년들은 현재의 절망을 표상하며 사회적 결손을 가져올 존재로서 제거, 경계, 정화, 동정, 무관심의 대상이 된다. 즉 전자는 개인의 신분과 자질을 부각시키는 화보 및 인터뷰 기사와 교육 전문가의 논평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담론들이 형성되는 데 비해, 후자는 특정 집단을 가리키는 상징어로 호명되며 주로 르포나 탐방기의 형식으로 감성적이고 원론적인 담론들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희망』이 기대한 재건의 주체는 '엘리트'라고 할 수 있다. 즉 사회적·경제적·개인적으로 능력 있는 자들이 성공하여 그 성공의 파이가 재건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망은 전후 현실과 괴리된 것으로서 절망의 현실을 딛고 일어서야 할 수많은 사람들을 소외시킨 결과를 낳는다. 아울러 이승만의 양자로 들어가 『월간희망』, 1957년 8월호에 다시 한 번 〈호화대화보〉와 『경무대 도련님의 사생활』³⁹⁾의 주인공이 되었던 이강석이 4·19 때 맞이한 몰락과 비극⁴⁰⁾은 『희망』에서 전망한 엘리트주의의 위험성을 예고

39) 『경무대 도련님의 사생활』, 『월간희망』, 1957.8, 117쪽.

한다.

하지만 『희망』에서 보여주는 엘리트주의는 6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전혀 낮설지 않다. ‘금수저, 흙수저’, ‘1등만 알아주는 세상’ 등의 유행어가 단적으로 나타내듯이 엘리트주의는 여전히 우리 사회에 건재하다. 그리고 그때보다 더 많은 엘리트가 있고, 부모의 대다수가 자기 자식을 엘리트로 만들려고 애쓰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이 모순의 뿌리를 『희망』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이 『희망』의 의의라고 생각한다.

이 논문은 방대한 자료를 살피고 분석하느라 당대 다른 잡지의 아동·청소년 담론과 비교하며 고찰하지 못했다. 이후 그러한 작업을 보완하겠다.

40) 이강석은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해야 성명을 발표한 지 이틀 뒤인 4월 28일, 경무대의 비서가 쓰던 36호실에서 아버지 이기봉과 어머니 박마리아, 동생 이강욱을 권총으로 쏘고 나서 자신도 자살했다. 『위키백과』 참고.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종완, 『월간희망』, 희망사, 1952.6-1962.3.
주간희망, 『주간희망』, 희망사, 1955.12.26-1958.9.19.

2. 논문과 단행본

- 권보드레 외, 『아프레겔 사상계를 읽다: 1950년대 문화의 자유와 통제』, 동국대 출판부, 2009.
- 권세미, 『유신체제기 대중영화에서 갱생의 서사와 사회적 타자의 재현 양상 연구: 소년범의 집단 수용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학위논문, 2016.
- 박선주·오경환·홍양희, 『고아, 족보 없는 자: 근대, 국민국가, 개인』, 책과함께, 2014.
- 엄동섭, 『1950년대 희망사 간행 대중잡지의 서지 연구』, 『근대서지』 제13호, 근대서지학회, 2016, 158-189쪽.
- 이봉범, 『1950년대 잡지 저널리즘과 문학-대중잡지를 중심으로』, 『상허학보』 30집, 상허학회, 2010, 397-454쪽.
- 이은선, 『전쟁기 『희망』과 조흔파의 “명랑소설” 연구』, 『어문론총』 제66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5, 295-321쪽.
- 장수경, 『『학원』과 학원세대』, 소명출판, 2013.
- 전지니, 『『희망』 소개 문예면에 나타난 전쟁기의 윤리-김광주의 『동방이 밝아온다』(1951)와 방인근의 『유엔공주님』(1952)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70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6, 103-130쪽.
- _____, 『1950년대 초반 종합지 『희망』의 반공청년 표상 연구』, 『어문론총』 제68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6, 370-400쪽.
- 조운아, 『인권교육의 텍스트 확장을 위한 연구-1950년대 대중잡지 『희망』을 중심으로』, 『종교교육학연구』 제47권, 한국종교교육학회, 2015, 115-136쪽.
- 최배은, 『한국 근대 청소년소설의 형성과 이념 연구』, 숙명여대 박사학위논문, 2013.

Abstract

A Study on the Representation of "Hope" in the Magazine
Huimang(Hope), Published During the Wartime
- Focusing on the "Child and Youth Discourse"

Choi, Bae-Eun(Sookmyung Women's University)

In the 1950s, the magazine *Huimang(Hope)* was published in order to support the national efforts in leading the cultural education of the public, reconstructing the country, and paving the way for the future during the wartime, which was a time of destruction and loss. Accordingly, the exploration of "hope", which was represented in the magazine, is not only the key to understanding the magazine, but also a way to considering its significance and limits. It is true that the magazine represented "hope" from a variety of discourses. However, in this study, I considered "hope" from the "Child and Youth Discourse."

In *Huimang(Hope)*, minors stood for both the hope in the future and the despair in the present. Unlike the other juvenile journals, in which children and youth symbolized the hope for the future, in *Huimang(Hope)*, children and youth had different representations according to their social status and talents. For example, the children with respectable parents and a happy family, the students who were able to study without concerns about tuition fees, and the geniuses with outstanding talents represented as the "hope" to make our the future better. However, orphans, biracial children, self-supporting students, child laborers, and juvenile delinquents are represented as the "despair" in the present. Since these children and youth were seen as defective by society, they became objects of removal, alarm, suspension, purification, sympathy, and indifference. In conclusion, it is safe to say that in *Huimang(Hope)*, the subject of reconstruction was the ruling elite. This kind of elitism is still prevalent in our society today. To our dismay, the more most of parents are trying to make their children another elite, the more the "hope" in our society disappears. The root of this irony can be found in the magazine *Huimang(Hope)*.

This study is important because, in the sense that I examined the relatively

unknown magazine *Huimang(Hope)*, and uncovered somewhat of its significance and limits. However, I think that a comparative study should be performed with other contemporary journals.

(Key Words: wartime, the magazine *Huimang(Hope)*, the representation of "hope", Child and Youth Discourse, children, orphan, genius, juvenile delinquents, student, self-supporting student, elitism)

논문투고일 : 2017년 7월 11일
심사완료일 : 2017년 8월 4일
수정완료일 : 2017년 8월 11일
게재확정일 : 2017년 8월 14일